



생활과학대학 동문회보

Fall 2019

Alumni Newsletter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동문회

College of Human Ecology Alumni Association
Yonsei University

149년 전통의 영국 비타민 홀랜드앤바렛

SINCE 1870



HOLLAND & BARRETT

Helping you live a healthier, happier life

www.hollandandbarrett.kr

홀랜드앤바렛 삼성타운점, 메세나폴리스점, 파르나스몰점, 영풍문고(종로)점, 롯데몰수지점

목차

회장인사	2
학장인사	3
생활과학대학 소식	4
학과별 동문 소식	5
동문회 활동보고	10
재상봉 후기	17
장학생 감사 서신	28
동문의 글	34
재무 보고	40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동문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50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삼성관) 528호

발행인 | 이진경 편집위원장 | 유희인 편집·디자인 | 김민재

2019년 11월 발행

회장인사



이진경

아동79 | 생활과학대학 동문회장

안녕하세요?

작년 2월에 동문회장이 된 후로 이제 두 번째 동문의 밤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맡겨주신 선후배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동문회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 생과대 동문회는 특별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동문이 일체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생과대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동문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선후배님들이 열심히 도와주고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모습은 어느 모임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 적극적으로 동문회 일을 해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고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동문 선후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생과대 동문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임기를 잘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생활과학대학 동문회장 이진경



고애란

의생77 | 생활과학대학 학장

사랑하는 생활과학대학 동문여러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과 가을 태풍도 지나간 아름다운 계절에 동문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교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동문 간의 유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생활과학대학 동문회의 활발한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취임 2년째를 맞아 헌신해 주시는 이진경 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동문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활과학대학이 새로운 50년을 향한 도약을 시작한지 어느새 다섯 번째 해를 맞았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무한한 모교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인간 삶의 가치향상을 위한 Neo-Entrepreneurship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도약과 발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섯 학과 모든 전공영역에서 이에 걸맞은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한 신입교수님들이 함께 하면서 더욱 큰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후년에 시작될 4단계 BK21 plus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후위기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학령인구의 감소 등 앞으로 대학 운영에서 어려움이 더욱 많아지겠지만 이 시대에 경쟁력 있고 꼭 필요한 사회적 리더가 될 수 있는 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보다 큰 중요성을 가지는 ‘인간 중심의 생활과학’의 학문적 가치에 맞추어 사회문제해결과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모아주신 발전기금은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소중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다섯 학과의 최우수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수여해 주시는 총동문회 장학금은 다른 어느 대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랑스러운 후배사랑입니다. 2016년부터 미주동문회에서 마련해주신 장학기금으로 미국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졸업생이 어느새 1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동문회 장학금’과 같이 의미있는 장학금 제도를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문분야에서 활약하시는 동문님들은 학생들의 좋은 역할 모델이 되며 대학의 자랑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봉사와 많은 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동문들이 바로 학생들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후배양성과 지원을 위해 동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성을 모아 총동문회 장학금, 미주동문회 장학금을 마련해 주시는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재학생과 동문 모두가 서로 소통하며 지혜와 경험을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에서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참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며 동문 여러분과 함께 연세정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1월

생활과학대학 학장 고애란

생활과학대학 소식

2018년 9월~2019년 8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수련회

2019년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국제캠퍼스에서 2019학년도 입학생 127명(의류환경학과 30명, 식품영양학과 21명, 실내건축학과 26명, 아동가족학과 23명, 생활디자인학과 27명)을 대상으로 2박3일 동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수련회가 진행되었다.



201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9년 2월 25일 오전 10시 학위수여식이 삼성관 최이순홀에서 거행되었으며, 97명(의류환경학과 18명, 식품영양학과 20명, 실내건축학과 18명, 아동·가족학과 25명, 생활디자인학과 16명)이 학사학위를 받았다.



재상봉 행사

2019년 5월 11일 창립 133주년 기념행사일에 생활과학대학 자체로 재상봉 행사가 오전 10시에 최이순홀에서 개최되었다. 약 70명의 재상봉 동문이 참석하였으며, 50주년 동문 대표 이아리(주생65) 동문과 25주년 동문 대표 최영지(주생90)동문이 주축이 되어 모금한 생활과학대학 발전기금 2,080만 원을 대학에 기부하였다.



201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19년 8월 30일 오전 11시 학위수여식이 대강당에서 거행되었으며, 60명(의류환경학과 18명, 식품영양학과 11명, 실내건축학과 5명, 아동·가족학과 13명, 생활디자인학과 13명)이 학사학위를 받았다.

학과별 동문 소식

의류환경학과

* **신금식 (82입)** 동문은 2004년 기능성 스포츠 의류 생산기업 (주)신티에스(www.shints.com)를 설립했다. 신티에스는 베트남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기능성 의류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고어텍스 기술인증 24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올리는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2010년에 자전거전문의류 브랜드 NSR 라이딩을 런칭한 후 2019년 현재 국내 1위의 자전거의류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2014년 국내봉제업체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진출하여 현지 최대 규모의 의류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에티오피아 최초로 공원 기숙사를 준공하여 2019년에 첫 입주 시작되었다. 지금 세계 유수 의류 브랜드 바이어들이 신티에스 에티오피아 공장에 생산 주문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 23개 대리점과 4개 직영점, 온라인 판매 200여 개 이상의 바이크 전문 매장에 NSR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전거 전시회 <인터바이크>에 5년 연속 단독부스로 참여하고 있고 지난해 유럽 유로바이크 어워드에 최종 결선까지 오르는 등 해외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이보현(82입)** 동문은 2003년 운동화 브랜드 '슈콤마 보니'를 론칭하여 디자이너슈즈 브랜드시대를 열었고 2012년 코오롱 FnC와 M&A를 통해 규모를 키웠다. 최근 LF 풋웨어 리테일 부문 상품기획 총괄 상무로 영입된 후 슈즈 편집숍 '라움에디션'을 강화하고 있다. 또 바네사브루노아페 슈즈와 질스튜어트슈즈를 함께 선보이는 '아페슈즈' 매장도 확장하고 있다.



* **장혜숙(81입)** 동문은 상명대학교 무대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에서 무대의상전공으로 M.F.A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연극> 편집위원이기도한 장 동문은 우리나라 무대의상전공 1호 교수이며 국내 최초의 무대의상 개론서라 할 수 있는 <Custom Design>을 발간하였다.





*** 장은영(84입) 동문**은 의생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오레곤 주립 대학에서 어패럴머천다이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2년 유한대학교 패션 디자인과 교수로 부임하여 기획처장, 총괄전략기획단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9년 7월 1일에 부총장으로 임명되었다.

*** 진병호(84입) 동문**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석좌교수로서 한국인 그리고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의류학회(ITAA)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국제의류학회는 섬유, 의류, 패션산업 등에 관련된 미국 대학교수들이 주축이 된 학회로 회원 수가 2500여 명에 이른다. 지난 5월 투표를 통해 선출된 진 동문은 2020년에는 예비회장으로, 2021년에는 회장으로, 2022년에는 고문으로 총 3년간 국제의류학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진 동문은 의생활과에서 학, 석사와 박사를 마치고 미시건주립대에서 박사후 과정을 보냈다. 오클라호마 주립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수, 이탈리아 마체라타



대학 방문 교수를 거쳐 지난해 8월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교수로 부임했다. 진 동문의 저서 6권, 119편의 연구논문이 학회 저널 등에 수록된 바 있다.

식품영양학과

장혜자(83입, (사)한국급식의식위생학회 회장) 동문은 2019년 5월 28일 더플라자 호텔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하여 <현장 식품안전 점검 및 지도 역량 강화>를 주제로 식품위생 안전교육을 하였다.

(사)한국급식의식위생학회는 푸드서비스산업 분야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여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 보건 증진 및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사단법인으로 급식의식산업분야의 위생 관리에 관한 학술연구, 위생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조사 연구,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실내건축학과

*** 주생활과 69학번 13명**은 2019년 5월 14~15일 천리포로 1박2일 여행을 떠났다. 천리포수목원 안에 있는 한옥인 <목련>에서 묵으며 수목원 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고 신두리 해안사구를 산책하였다.



2019년 7월 25일에는 김동선 교수의 초대로 한자리에 모였다. 김 교수는 50년 전에 주생활과에서 색채학과 색채구성을 4학기 가르쳤고 당시에 개인 스튜디오를 개방하여 사진 등을 자유로이 배울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해외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시절, 외국에 있는 학교 등을 안내하여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김 교수는 새로운 스타일의 구성으로 각 제자에게 맞는 덕담을 직접 쓴 족자를 보냈다.



*** 박해경 동문(69입)**은 두 번째 수필집 <오늘이 무슨 날이게?>를 출간하였다. 교회기념으로 출간한 이 수필집에서 박 동문은 일상 생활 속 다양한 소재를 통해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소비자 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집한 여러 사회 현상을 소비자의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다.



*** 이미배 동문(69입, 가수)**은 2019년 12월 4일 18:30 프레지던트 호텔 31층에서 <이미배 디너쇼>를 열 예정이다. 이 동문의 디너쇼는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이번이 8번째이다. 이 동문은 1980년에 KBS 2TV로 바뀐 TBC (동양 방송)이 1971년에 주최한 대학생 재즈 페스티벌에서 칸초네 <Ricorda>를 불러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으며 앨범발표 등과 함께 가수로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영주(79입·중앙대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동문**이 2019년 5월 1일 한국주거학회 제22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김 동문은 취임사에서 “보다 내실 있고 유익한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회원의 크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각적인 채널로 소통하겠다.” 라고 하며 “학회 발전을 위해 한결 같은 자세로 봉사하고, 주거학 분야의 선도적 학술적 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김석경(89입) 동문**이 2019년 9월 1일자로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의 부교수로 부임하였다. 김 동문은 졸업 후 삼성전자 생활시스템 연구소, 주택연구소(현 LH공사의 주택도시연구원)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2006년 Texas A&M대학교에서 건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플로리다 주립대의 소비자 및 의류학과의 주거학 전공 조교수, 미시건 주립대 실내디자인학과 부교수로 재직하였고 2018년 8월부터는 실내디자인학과 디렉터를 맡아서 학과의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동문회와 연계한 advisory board를 운영하기도 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실내 및 건축계획, 환경계획이론, 연구방법론, LEED와 WELL 인증과 그린디자인,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 등이 주된 연구 분야이다.

아동가족학과

***조성연(79입·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한국생애학회 회장, 한국아동학회 회장)** 동문은 2019년 9월 20일 상명대학교 미래백년관 밀레홀에서 <전생애 뇌 발달>을 주제로 하는 한국생애학회 추계 학술대회를 열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유아기, 아동기, 노년기의 뇌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발표와 최근 학계의 주요 이슈인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도 실시되었다. 또한 2019년 11월 2일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 사회와 함께한 아동학의 40년, 미래에 답하다>를 주제로 하는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를 열었다.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동문회(회장 김영심·82입,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2019년 7월 27일 하계모임에서 위영희(73입,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정계숙(74입,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동문의 정년퇴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활디자인학과

*** 조은애(99입)동문**이 런칭한 개인 브랜드 TIBAEG은 매시즌 서울패션위크 런웨이에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으며 조 동문은 파리, 상해, 홍콩 등에서도 전시와 쇼를 열고 있다. 2019년에 스와로브스키, 디즈니 등 글로벌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하였으며 중국 Yinger그룹 Award의 우승자로 캡슐컬렉션을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뉴욕과 파리에서 TIBAEG의 해외 팝업스토어가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10월, 아모레 퍼시픽의 설화 문화 전 오프닝 쇼와 10월 17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전시되는 롯데뮤지엄의 <To the Moon with Snoopy>가 있다.



*** 한예은(99입) 동문**이 새로운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드샤나 De Shana'를 올 가을에 런칭한다. 100% 천연섬유인 모달로 제작된 빅 사이즈 스카프가 주종으로 올해 봄, 여름 시즌에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하우스 편집샵에서 테스트 판매를 거쳐 고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한 동문은 매 시즌 새로운 여행지 혹은 장소의 사진을 재해석하여 프린트로 디자인하는데 올해 가을, 겨울의 테마는 '서울'이다. 미세 먼지 없는 서울의 하늘과 한강, 서울의 풍경을 만날 수 있다. 현대백화점 팝업 행사와 www.38deshana.com(10월 오픈)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 **이문경(03입)** 동문은 생활디자인학과 졸업 후, KT 글로벌사업부문에 입사하였고 2018년 과장으로 승진하였다.

* **홍윤정(03입)과 김리라(대학원11입)** 동문은 2012년에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선정 디자이너 브랜드인 MarBlanc을 창업하여, 디자인 작업과 연구를 계속해왔으며, 그동안의 디자인 결과물들을 모아 갤러리 달드베르에서 2019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패션액세서리를 전시하였다.



진행하였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 소개된 2019년 봄 여름 캠페인 영상을 주제로 이태원 파우스트에서 디자이너 브랜드 최초로 릴리즈 파티를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생들과 이태원 우사단로에서 <일제곱미터> 전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019년 봄 여름 시즌 실버 액세서리 라인을 론칭하여 송민호가 착용한 실버 에어팟 케이스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2019년 10월 딩고/딩고스타일 셀러브리티 디자이너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디자이너의 하루'를 주제로 2020년 봄 여름 콜라보레이션 캡슐 컬렉션을 선보였다.



* **정승진(04입)** 동문은 영국 런던의 Brunel University, College of Engineering, Design and Physical Sciences에서 MSc Digital Service Design을 전공하고 2019년 졸업하였다. 2019년 가을학기에 연세대학교 대학원 생활디자인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한다.

* **김희진(05입)** 동문의 브랜드 <키미제이>는 2019년 3월 JW 매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스위트룸에서 바이어와 프레스,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프라이빗 프레젠테이션을



동문회 활동보고

2018 가을 후배 사랑 장학기금 마련 바자회



2018년 가을 후배 사랑 장학기금 마련 바자회가 10월 24일(수)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백양누리 헬리눅스 홀과 광정환 홀에서 개최되었다. 후배사랑 장학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바자회에서는 생과대 자체 개발 상품인 무릎 덮개와 손수건, 여행용 파우치 등을 판매하였다. 그 외에도 가방과 지갑, 기증받은 남녀 의류, 스포츠 운동화, 매년 후원해 주는 우태하 피부과와 바디샵의 화장품, 식품영양학과 박태선 교수의 '보타닉센스' 화장품, 메디힐 마스크팩, 중고 물품 및 식품류인 미역, 다시마, 고추가루, 젓갈 등을 판매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외부업체들이 일정금액의 참가비를 내고 지속적으로 바자회에 참석하고 있다. 각 판매대에서 40여명의 동문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등, 동문과 지인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후배들에게 전달할 2천만원의 장학기금을 무난히 마련할 수 있었다.

2018 가을 생활과학대학 동문의 밤



바자회가 끝난 후 저녁 6시부터 백양누리 그랜드 볼룸에서 동문의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만찬과 기념식인 '동문의 밤' 이 진행되었다. 박은미(아동 80)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동문의 밤' 행사에는 이진경(아동79) 동문회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하미경 생활과학대학 학장, 이상원 생활과학대학 부학장, 이영경(의생80) 전임 동문회장을 비롯하여 교수, 역대 전임 회장 및 졸업 50주년 재상봉 첫 회인 64학번 동문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동문이 하나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진경 회장은 "생활과학대학을 사랑하고 아끼는 선배님들, 이러한 선배들을 따라 열심히 우리 대학을 위해 헌신하는 동기들과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다른 유대와 단합된 모습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고 전했으며, 학과별로 한 명씩 의류환경학과 신지애 외 4명 성적 우수자에게 2018년도 2학기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축하연주로는 김예진(관현악12) 외 6인의 연주, 'YES SOUND' 밴드(87 동문)의 '맘마미아' 공연이 진행되었고, 특히 상명대학교 평생교육원의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팀 '위너스크루'의 김의영 교수, 권순민 교수, 세계대회 챔피언 챔블레크루의 최동욱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한 공연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올해도 임원진의 헌신적인 수고와 더불어 여러 동문, 교수들의 다양한 기증품으로 즐거운 경품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응원가 '연세여 사랑한다' 를 부르며 행사를 마무리하여 참석자 모두의 가슴에 또 하나의 연세 사랑에 대한 추억을 남겨 주었다.



2018평가회



바자회와 동문의 밤 행사가 마무리 된 후, 바자회 물품의 일부는 이나경(신83) 동문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대한 뇌종양협회의 환우와 가족들에게 기부하였다. 2018년 11월 1일에는 동문행사를 치르느라 수고한 전, 현직 동문, 각과 대표들과 바자회를 도와준 동문 등 20여 명이 차명화(식생86) 동문이 운영하는 <빌리지 브루어리>에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나누며, 내년 행사를 준비하는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018 여자총동문회 송년의 밤



2018 연세대학교 여자총동문회 송년의 밤과 2019 연세동문 새해 인사의 밤에 생활과학대학 동문 임원진이 참여하였다.

여자총동문회 송년의 밤은 2018년 11월 28일 오후 6시 30분 동문회관 3층에서 'With You 평화와 소통 함께 하면 특별해 지는 일상' 이란 주제로 열렸다.

2019 연세동문 새해 인사의 밤

2019 연세동문 새해 인사의 밤은 2019년 1월 8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박삼구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회장은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2019년을 잘 관리해서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새해 인사를 하였다.

2019년 졸업 50주년 및 25주년

재상봉 기대표 초대모임



생활과학대학 하미경 학장의 초청으로 2019년 3월 23일 동문회관 <티원>에서 졸업 50주년 및 25주년 재상봉 행사를 앞둔 65학번과 90학번 동문 기대표 모임이 있었다. 이날 모임은 재상봉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하는 동문회 임원진들과 기대표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재상봉 준비에 필요한 노하우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2019년도 임원진

2019년도 동문임원진은 이진경(아동79)동문회장을 비롯하여, 정아영(의생79), 정희경(주생79), 성윤실(아동79) 부회장, 조미혜(아동82) 총무, 문소라(주생89) 재무부장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생활과학대학 졸업 50주년 및 25주년 재상봉 행사



2019년 재상봉 행사가 5월 11일(토) 오전 10시에 삼성관 최이순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도 졸업 50주년 및 25주년 재상봉 행사가 뜻깊게 진행되었다. 이 날의 행사는 하미경 학장과 이진경 동문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상원 부학장의 내빈소개, 50주년 동문 대표 이아리(주생65) 동문과 25주년 동문 대표 최영지(주생90) 동문의 인사말 및 동문소개가 이어졌으며, 50주년은 1080만 원, 25주년은 1000만 원을 모금하여 생활과학대학 발전기금으로 전달하였다. 재상봉 동문에게는 동문회에서 마련한 기념품이 증정되었으며, 생활과학대학에서 준비한 케이크 커팅 및 다과회 순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동문뿐만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동문도 참여한 행사에서 재상봉 동문은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 따뜻한 우정의 시간을 가졌다.

● 50주년 재상봉 행사에 참여한 동문 (65학번 재상봉)

| 의생활과 65 (11명)

강인숙, 곽순연, 김순옥, 김은경, 김진숙, 박정수, 박필순, 신정연, 오순옥, 임혜옥, 허숙희

| 식생활과 65 (10명)

강태선, 김경희, 김일조, 손명희, 양미자, 이정애, 조경희, 조춘희, 한광숙, 홍월분

| 주생활과 65 (7명)

강정희, 김광순, 김희진, 박길자, 박영숙, 이수경, 이아리

● 생활과학대학 평생동문회비 납부자 명단 (90학번 재상봉)

| 의류환경 90 (3명)

박희선, 한선희, 한찬호

| 식품영양 90 (5명)

권성희, 백승희, 윤혜영, 정성연, 정유리

| 실내건축 90 (34명)

강문희, 강미현, 김미정, 김석경, 김소영, 김은난, 김일환, 김정경, 김종희, 김지영, 박성연, 신동선, 심유리, 안소미, 안창현, 오명원, 유영신, 유영희, 이강심, 이미란, 이윤정, 이은주, 이정아, 이주은, 이지은, 이혜정, 임윤선, 정경숙, 정상아, 주영란, 최영지, 허은정, 호유정, 황희정

| 아동가족 90 (21명)

곽주영, 권연희, 권영희, 김수연, 김수정, 김수지, 김현아, 박소연, 박영미, 이선아, 이세원, 이윤경, 이윤선, 이지은, 임호정, 장혜란, 정미림, 조은미, 최지희, 한선아, 함윤희

동문회 평생회비를 납부한 동문에게는 생활과학대학 근조기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9 연세대학교 여동문의 날 행사 참석

연세대학교 여동문의 날 행사가 2019년 5월 18일 'With you 함께하는 순간 특별해 지는 일상'을 주제로 연세대학교 충장 공관 뜰에서 개최되었다. 생과대 이진경(아동79) 동문회장을 비롯하여 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하였다. 작년 재상봉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가졌던 이주원(식생89) 동문은 드레스코드인 보라색 스카프를 친구들 뿐만아니라 같은 테이블에 앉은 선배 동문에게도 선물을 주는 등 훈훈함을 전하기도 하였다.



2018년 9월 ~ 2019년 8월 근조기 전달 내용

2018.09.18	배선민 부친상(의83)	신촌세브란스
2018.10.07	박미향 부친상(식76)	여의도성모병원
2018.10.12	임성신 모친상(주80)	삼성서울병원
2018.10.27	김원희 부친상(아88)	서울성모병원
2018.10.28	이미숙 시모상(식82)	대구모레아병원
2018.11.06	신지현 부친상(의83)	분당서울대병원
2018.12.05	김수지 시모상(아90)	일산명지병원
2018.12.08	서예경 부친상(아80)	서울성모병원
2018.12.19	김인경 모친상(의84)	서울성모병원
2018.12.27	김미양 시모상(아88)	통영서울병원
2018.12.27	심금령 모친상(의77)	아산병원
2018.12.30	김이경 부친상(의80)	삼성서울병원
2019.01.04	김혜경 부군상(명예교수)	신촌세브란스
2019.01.04	백자연 본인상(아92)	아산병원
2019.01.06	이기영 부친상(의77)	서울성모병원
2019.01.06	정현숙 부친상(아78)	여의도성모병원
2019.01.17	이계령 부친상(의86)	분당서울대병원
2019.02.16	최정윤 부친상(아88)	분당서울대병원
2019.03.14	김경순 시모상(아75)	흑석동중대병원
2019.05.14	최문희 부친상(의82)	서울대병원
2019.05.21	유화숙 부친상(의83)	인천새천년장례식장
2019.06.02	차미경 시모상(식81)	한양대병원
2019.06.10	손영미 시부상(의80)	아산병원
2019.06.17	최혜영 모친상(아83)	삼성서울병원
2019.06.30	문현주 모친상(식80)	신촌세브란스
2019.06.30	이혜경 부친상(의83)	분당서울대병원
2019.07.16	홍경애 모친상(주79)	신촌세브란스
2019.08.09	김민정 부친상(의86)	아산병원
2019.08.25	김정혜 부친상(식89)	신촌세브란스

**근조기는 생활과학대학 동문회
평생회비 납부자에 한해 전달됩니다.**

문의: 생활과학대학 02)2123-3094

2019 동문의 날

후배 사랑 장학기금 마련 바자회

일시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11:00 ~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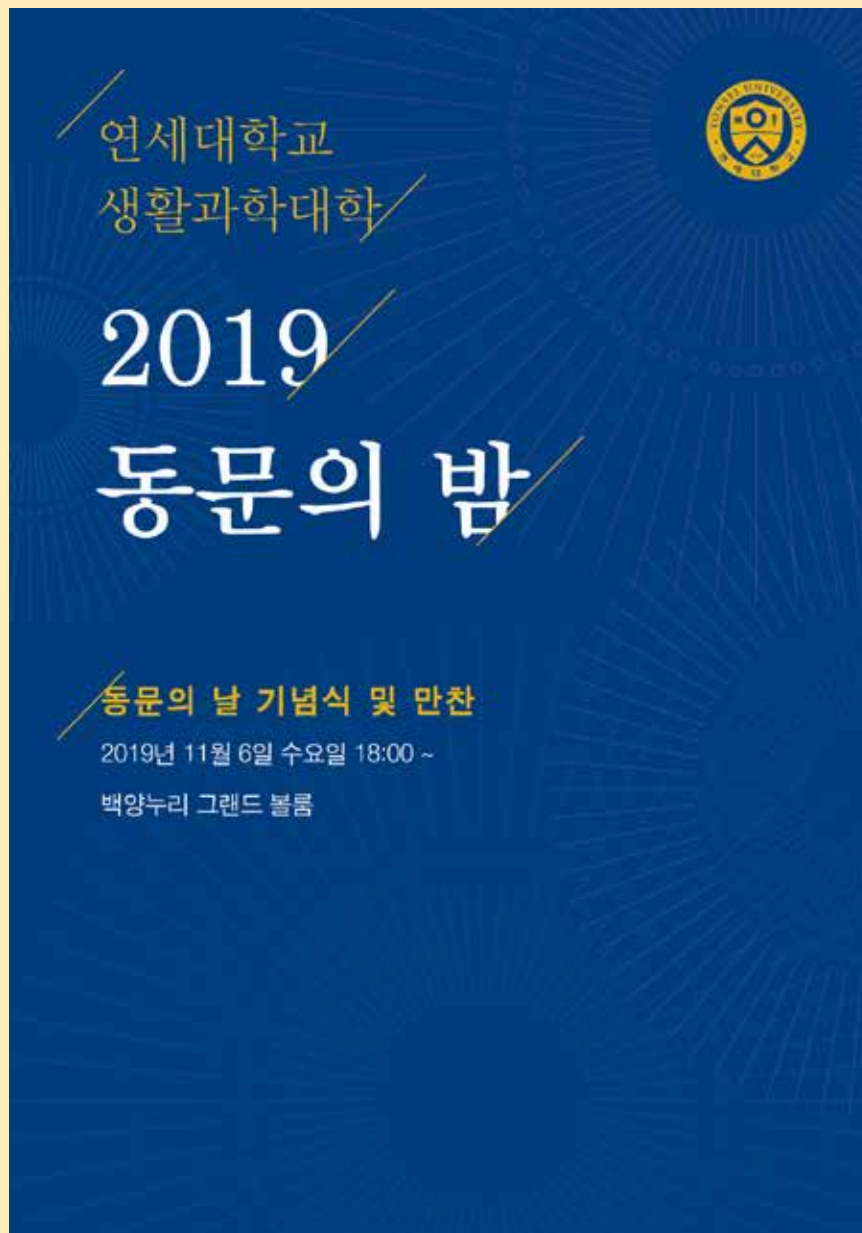
장소 백양누리 헬리덱스 홀, 광정환 홀

판매품목 생활과학대학 자체 개발 상품 (무릎덮개, 레이스 파우치, 가방 등)
화장품 (보타닉센스, 바디샴, 우태하피부와 화장품, 화장품 등)
패션제품 (골프의류, 레포츠의류, 의류, 밍크, 패딩, 구두, 운동화 등)
패션소품 (소미미디어엔트레이딩 블루진가방 및 잡화류, 지갑, 손수건, 스카프, 악세사리, 모자 등)
식품 (건어물, 견과류, 지리산토종꿀, 속초이비가젓갈 등)
기타 (홀랜드 앤 바렛 건강기능식품, 도자기그릇, 연세대학교생활협동조합 등)

동문의 날 기념식 및 만찬

일시 11월 6일 수요일 18:00 ~

장소 백양누리 그랜드 볼룸



YONSEI
Leading the Way to the Future

2019
생활과학대학
동문의 밤

후배사랑 장학 기금 마련 바자회
11월 6일 (수) 11:00 ~ 18:00 / 백양누리

동문의 날 기념식 및 만찬
11월 6일 (수) 18:00 ~ / 백양누리 그랜드 볼룸

기념품교환권

기념품 교환시 본권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No. _____

경품교환권

No. _____

응모권

학번	_____	학과	_____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No. _____

동문회 수익사업

생활과학대학동창회에서는 해마다 가을동문회 때 열리는 바자회 및 지갑등의 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매년 각 과 1명씩 총 5명에게 후배사랑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는 모교 사랑, 후배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50주년 재상봉 후기

이아리

주생65

정해진 장소만 맴돌고 살았는지, 차로 30분이 채 안되는 거리를, 첫 재상봉 이후 25년이 지나 50주년 재상봉으로, 오랜 세월만에 학교를 찾았다.

신촌역 쪽을 돌아 복잡하게 차들로 메워진 대로변과 달리, 학교는 조용하고 아늑하다.

넓어진 백양로를 사이에 두고 여기저기 들어선 새 건물들이 낯설었지만 익숙했던 장소여서 감회가 새로웠다.

50년 반세기 교정의 변화는 당연하리라. 우리 역시 먼 길을 돌아 삶의 끝 지점 어디엔가 선 노년의 모습으로 다녔던 학교를 찾았다.

이곳에서의 대학 생활이 꿈결 같다. 혼자 걸어도 좋았던 길게 뻗은 백양로, 정법대 옆 강의실, 언더우드 동상을 지나 꽃나무로 울타리를 두른 논지당 뒷숲. 교정은 그때도 조용했던 기억이다.

나이 70 중반을 넘어 할머니가 된 지 오래인 지금 '나의 학교' 라는 말 자체가 생경하지만, 카톡에 친구들의 옛날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재상봉 준비로 몇 차례 학교를 드나들며 행사와 여행으로 일을 나누어 열심히 준비하였다. 열 서너 명의 동기가 매월 첫째 월요일 수십 년을 계속 만나오고 있다. 행사에 필요한 기금은 한 달여를 앞두고





준비가 끝났고 며칠 간의 행사 참석 여행이 여의치 않았을 미국에 사는 친구들도 5명. 두세 시간의 거리에 살고 있으나 좀처럼 만나지지 않던 친구들. 모두 28명이 행사에 참석했고 24명이 2박3일의 여행에 함께했다. 멀리서 온 친구들을 위해 '상남 경영원'에 숙소를 정했고, 이튿날 이른 시간에 여행을 떠나게 되어 있어서 행사 후 뒷풀이로 '백양누리 라운지'에서 간단히 만찬을 했다.

초기의 가정대학을 맡으시고 매사에 얼마나 노심초사 하셨을까 싶은 최이순 학장님이 먼저 생각난다. 의,식,주 생활과 교과목도 그러하셨을 거고 우리들의 복장까지 엄격하게 점검하시면서도 어머니같이 정겨운 분이셨다. 당시에는 20여 학점 교과목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이 주어져 졸업 후, 4년 전 학생이었던 모교로 돌아가 애송이 선생으로 부임하였으나 '가정 관리' 교과서 이외에는 참고서가 마땅치 않던 시절이었다.

학교에 오면서 문득 그때의 가정대학은 오늘 어디에 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났다. 멀고 높고 깊은 곳으로 와, 내일로 계속 나아갈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일찍 도착해서 수월하게 주차하고, 먼저 생활과학 대학에서 기념식을 가진 후 노천강당에서 열리는 전체 행사에 참석하였다. 작년에는 비가 와 추웠다는데, 올해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고 햇볕은 따갑다.

충장공관에서의 점심 식사는 가족 참석도 환영이었으므로 며느리도 손자도 같이 온 행복한 동기도 있었다.

질푸른 5월 재상봉의 날, 교정 곳곳에는 우리의 지난날이 묻어있었다. 그 시절의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충만했던 것만은 아니었을텐데,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와 안도를 느끼는 여유로운 나이가 되어 뜻있는 하루를 즐기는 날이기도 했다.

대강당의 열기는 대단했다. 25주년 재상봉 동문들은 거리낌 없이 합성을 질렀다. 꿈과 이상이 자유로웠던 이곳 학교의 그리움이라 싶기도 하다.

25주년, 50주년, 60주년 모두가 소리 질러 우리의 대학을 불렀다.

행사 후, 2박3일의 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은 동기 몇 명이 모여 친구를 찾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우리를 반기기는 하나, 그의 기억이 분명치는 않다.

그가 살았던 동문회관 뒤 경사진 길을 올라가면 나지막한 교수 사택 몇 채가 있었다. 집에 비해 텃밭이 커서 상추랑 푸성귀를 심어 가족끼리 모여 점심을 먹곤 했던 그 친구의 '연세'가 남달랐을 것 같아 학교에서 받은 연세 마스크트 한 쌍은 그곳 서랍 위에 얹어 놓았다.

현모양처가 꿈인 시절의 우리 동기들은 한결같이 건강하고 훌륭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학교 교정에서 학장님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 후 백목련 자목련 한 그루씩을 심었다던 친구의 목련도 교정의 어디쯤에서 더욱 뿌리를 넓히고 있으리라 싶다.

우리들의 대학에 감사와 응원과 사랑을 보낸다. 10년이 지난 꽃들은 만발하고 녹음은 더욱 짙을 화려한 5월의 어느 날. 옛날 친구들과 웃을 차려입고 아름다운 교정을 거니는 우리를 상상해 본다.



재상봉행사 다시보기

한지희

의생90

1990년 입학, 1994년 졸업.

90학번이라는 이름으로 4년 동안 신촌 언저리에서 생활하면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젊음을 만끽하던 그 시절을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2019년 1월 2일 시작된 우리들의 동기찾기는 카카오톡 단톡방으로 이루어 졌으며 캐나다, 미국, 홍콩, 일본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포함 22명의 친구가 모였다. 사실 재학 중에는 YBS(연세교육방송국) 생활에 몰두해서 학과 활동은 거의 하지 않던 내가 이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어색하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듣게 되는 친구들의 반가운 소식에 기회가 되는 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졌다.

전공을 살려서 여전히 사회활동을 하는 친구들, 전공과는 상관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친구들, 미래의 주역들을 키워내고 있는 친구들.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나를 자극하기도 하고, 예전의 모습을 간직한 친구들을 보며 우리의 젊음을 되돌아 보기도 하고... 재상봉행사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닐까?

1월 25일 첫 번째 동기모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조금은 어색할 것 같았지만, 그것도 잠시 남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서로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 동안 살아온 얘기들을 함께 나눈 소중한 시간이었다.



3월 16일 두 번째 동기모임

멀리 홍콩에서 온 고마운 친구와 함께 조출하긴 했지만, 2차까지 함께한 시간은 대학시절 풋풋한 사진을 함께 보면서, “우리 그때 예뻐구나. 역시 젊음이 좋다.” 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5월 11일 대망의 행사당일

뉴저지에서 달려온 친구까지, 독수리 오형제를 떠올리게 하는 다섯 명의 정예 멤버는 우리 과의 특성상 선글라스는 필수라며 사진촬영에 임했다. 몰라보게 달라진 교정을 둘러보고, 50주년을 맞아 참석하신 선배들을 보며 감탄하면서, ‘25년 뒤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행사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아카라카’ 아니었을까? 해마다 가을이면 이 학교에 오길 잘했다 느꼈던 그 시간.

친구들! 25년 뒤에 다 같이 ‘원시림’ 을 불러보자구!!



식품영양학과로 이름이 바뀌던 해에 만난 빛나는 친구들

식영 90 일동



20여 년이 흐른 후

이주은

주생 90

막상 재상봉 당일이 되니 긴장되기도 하고 어색함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껴졌다. ‘만났을 때 혹시 너무 어색하지 않으려나? 그냥 가족이랑 주말을 보낼까? 나 한 사람 가지 않아도 티도 안 날 텐데...’ 마음 한편에 이런 저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신촌으로 출발했다. 신촌길을 구경하며 기억들을 꺼내어가며 학생회관에 도착했다.

행사가 시작되었다.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 가수들의 진심이 전해지는 얘기들과 노래들로 마음이 파스해졌다. 드디어 아카라카 순서, 지금 목숨 걸고 외치는 거라는 아카라카 응원단장의 구호에 우리는 마음과 열정을 내질러 던지듯 외쳤다. 아카라카 구호 하나로 우리는 행복했다. 20년 전 어려서 함께 외쳤던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 이 순간도 행복했다.



선배들의 수억의 기부금 발표는 내 얘기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뿌듯했다. 도저히 이 한자리에 모일 수가 없는 연세의 여러 동문이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고 현실의 이유를 거슬러 재상봉 행사로 한 자리에 모였다.

행사로 한껏 흥이 난 우리는 뒷풀이 장소로 함께 걸었다. 함께 걷는 것이 즐거웠고 시간이 아까웠다. 각자의 삶의 자리는 저마다 달랐다. 자신의 이야기, 서로에 대한 관심과 질문으로 뜨겁고 진한 식사시간이 채워졌다. 그때 한 친구의 나를 향한 얘기가 기억에 남는다.

“너는 대학 때는 말도 잘 하지 않고 조용하더니...”

아, 그랬지. 그때 캠퍼스 시절, 모든 것이 불확실해서 방황하게 마련이지만 이 친구들과 더 뜨겁게 나누고 많은 것을 나눌 걸 하는 생각이 지나갔다.

20년 전의 나처럼, 우리처럼 지금 캠퍼스를 오가는 후배에게 이런 마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지금 모든 만남을 몸과 마음을 던져 뜨겁게 보내고 껴안으세요.’ 함께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어느 봄날의 선물

김수지

아동 90

재상봉행사를 앞두고...

학과 선배들에게서 "졸업 25주년 재상봉행사를 하고 나서 애교심이 생겼다, 동기들과 다시 끈끈하게 만나서 너무 재미있다. 합창단은 꼭 해라~" 등등 재상봉행사에 갔던 일을 너무 행복해하고 좋은 경험이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곤 했다.

'졸업 25주년이면 그때 내 나이가 몇인가? 와~ 그날이 정말 오는 걸까?'

기대도 되는 한편 웬지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서글퍼지는 마음이 들었다. 40명의 학과 동기들이 서로 뽀뽀이 흩어져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최근에 나는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친구들이 아이들도 크고 여유가 생기면서 다시 만나고 여행도 다니기 시작하면서 역시 친구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우리 학과 전공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전공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물론 다른 분야나 자녀 양육에 올인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꾸준히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만나지 못한 다른 친구들은 과연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모습은 여전할까? 궁금함과 그리움이 함께 밀려왔다.

재상봉행사 Count Down!!

이전에 학과 기대표를 했던 한선아 덕에 이미 단톡방에 40명 중에 33명이 함께 하고 있어서 연락하기 좋았다. 몇 년 전에 선아가 친구들 연락처를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고 연락되지 않으면 친정집에까지 전화해서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는 꼼꼼함으로 동문회관 식당에서 20명 넘는 친구들이 한 차례 모였었다.

그 당시 졸업 후 처음 만나는 친구도 있었기에 서로 돌아가면서 졸업 후 어떻게 지냈는지 5분 스피치를 했었다. 누가 누가 제일 안 변했나 즉석 투표를 하기도 했다. 어른들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어머~ 넌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니?" 라고 하며 안부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리도 많이 변하고 나이가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예의상 나누는 건가? 의아심이 생겼었는데 내가, 우리가 그러고 있다. 내 친구들이라 그런지 정말 세월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20대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고 느껴지는 건 왜일까?

단톡방에서 친구들의 추천과 지지를 받아 영광스럽기도 아동학과 90학번 기대표가 되어 2019년 초부터 재상봉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거의 70명이 되는 기대표 모임이 이미 작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난 두 번째 모임부터 나가게 되었다. 재상봉행사의 집행부서로 조직홍보분과, 출판분과, 재무분과, 행사분과가 있는데 재상봉기념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행사분과'가 재미있을 것 같아 과감히 행사분과에 들어갔다. 행사분과는 대부분 음대 기대표를 주축으로 재상봉기념 축하행사를 기획하고 지휘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기대표로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무는 학과 친구들의 최근 주소록을 업데이트하고 학교와 생활과학대학 기부금 모금과 생활과학대학 동창회에 많은 친구의 가입을 돕는 것이다. 한국에 있는 친구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여러 명의 친구도 너무나 반갑게 소식을 전해왔고 그중에 은미는 한국에 와서 재상봉행사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나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이 한두 명의 기부가 아니라 되

도록 많은 친구가 부담 없이 참여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했다. 친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어려움 없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었고 생활과학대학 동창회 평생 회원으로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가입할 수 있었다.

재상봉행사 기념 사진집을 위해 오래된 젊은 날의 사진들을 들춰보며 하나 둘 추억의 책장을 넘기게 되었다. 결국 몇몇 친구들이 기부한 사진과 내가 소장한 사진을 모으다 보니 대부분 사진에 내 얼굴이 들어가게 되었지만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의 우리들의 20대를 보낸 추억을 어제처럼 생생하게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그때 사진을 보니 이미 우리들은 패션피플이었다!!



재상봉행사 준비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합창이다. 기대표는 의무적으로 합창단 가입을 권유받았고 워낙 음악을 좋아하던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합창단에 참가하였다. 고등학교 때 성당 성가대 이후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합창단 경험이 설레고 기대가 되었다. 어느 순간 합창단원은 100여 명이 되었고 음대 친구들을 주축으로 뮤지컬 감독을 하는 친구가 작곡과 편곡을 해주었고 멋진 오케스트라와 퍼커션에 밴드까지 엄청난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매주 1회 만남으로 시작된 합창단 연습이 4월부터는 주 2회로 늘어났고 대부분 노래에는 아마추어인 친구들이 처음엔 곡을 익히기 바빴던 상태에서 점차 섬세한 표정까지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아동학과 친구 중에 로사가 함께 해주어 힘이 되었고 다른 친구들이 더 많이 참여하지 못하여 아쉬웠다. 매주 50명이 넘는 친구들이 연세대학교와 백석예술대학 강의실에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바쁘게 살고 있는 많은 친구가 이렇게 합창을 위해 시간을 내서 매번 연습하는 모습이 신기했고 이것이 재상봉행사의 힘이라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처음 어색하게 연습했던 곡은 영화 '미녀와 야수'에서 김아중이 불렀던 '마리아'였다. 나는 정말 운 좋게 마리아의 솔로 파트를 제안받았고 오디션을 거쳐 최종 솔로로 선정되었다. 성악과 하이테너인 신재호와 함께 듀엣 솔로를 하는 영광을 얻게 되어 걱정도 되면서 무대에 선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성악과에 편입했다는 오해도 받았지만 난 그저 노래방 흥부자일뿐!!



어느 봄날의 선물

드디어 2019년 5월11일 재상봉행사는 오전에 삼성관에 서 전·현직 교수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생활과학대학 행사로 시작되었다. 어느덧 우리 때 전공수업을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을 제외하고 모두 은퇴하셨다. 이은혜 교수님이 흔쾌히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고 그 당시 막 부담하셨던 박경자 교수님도 함께 하셔서 마치 1학년 오리엔테이션처럼 동그랗게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1학년 학과 오리엔테이션



삼성관 생활과학대학 행사 때

충장공관으로 이동하여 다른 학과 친구들과도 반갑게 인사하였고 노천극장에서는 포토존에서 학과별 단체 사진을 찍으며 오늘의 추억을 남겼다. 유달리 날씨가 더워서 한여름 같았지만, 우리의 젊은 날을 축하해주는 강렬한 햇빛이 기분 좋게 느껴졌다. 다른 학과 친구들을 보면서 서로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친구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힐끔거리며 야외파티를 즐겼다.

친구들은 하나둘 기념축하행사를 위해 대강당으로 모였다. 26명의 친구가 이번 행사에 참여해 다른 학과의 부러움을 샀다. 2층 가운데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은 집중해서 재상봉축하행사에 참여하였다. 아동학과 친구들이 행사가 진행되면서 열렬히 환호하고 아카라카 응원도 신나게 따라했는데 2층에 앉은 관계로 전체 모니터에 잡히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 역시 응원가는 원시림, 아파트가 최고야!! 친구들이 함께 일어나 '앉고~서고 stop!! 앉고~서고 stop!! 뛰고뛰고뛰고!!' 연고전의 추억이 휘리릭 스쳐 지나가며 다시 한 번 뭉클하였다.

변진섭의 추억의 노래 이후에 아기다리고기다리던 합창공연!! 무대 뒤로 건너가 심호흡을 하면서 초조하게 입장을 기다렸다. 무대에 올라가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고 나의 솔로 파트가 지나갔고 합창단의 내 위치에 들어가 서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관객의 환호와 함께 앵콜곡인 '젊었다' 까지 멋지게 한마음으로 합창 공연을 끝냈다. 정말 내 인생의 어느 봄날에 나를 위해 준비된 선물 같았다.



합창 공연 전에 친구들과



‘마리아’ 합창 공연



노천극장에서 아동학과 기념 사진

재상봉행사이후

2~3달을 집중해서 준비한 재상봉행사가 정말 꿈같이 지나갔다. 아동학과 친구들의 끈끈한 우정과 여전한 미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재상봉 행사 때 만들어진 합창단은 잠시 합창 연습은 중단되었지만, 여전히 친목 번개가 계속되었고 다양한 취미를 함께 할 수 있는 밴드가 속속 만들어졌다. 골프동아리, 레포츠동아리, 문화예술동아리, 댄스동아리 등 혼자라면 하기 힘든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마음 맞는 친구들이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 함께 모여 둘레길도 걷고, 작은 극장을 빌려 최근 개봉된 영화도 감상하고 음대 친구들이 참여하는 뮤지컬이나 콘서트도 가게 되었다.

재상봉행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에세이를 쓰면서 곰곰이 생각해본다. 성인기 초기를 우리의 열정과 도전으로 장식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내 아이들이 그 당시 내 나이가 되어있다. 전생애적인 발달 중에서 성인 중기 발달단계를 겪고 있다. 졸업 이후 취업과 결혼, 육아 등으로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중년의 어느 봄날!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잠시 멈추어서 새롭게 좋은 만남을 갖고 그동안 못해본 도전을 해보고 친구의 우정을 다시 느껴보는 것 같다. 아동학과 동기들 대부분이 가족과 일, 제한된 틀에 갇혀서 앞만 보고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제는 이들이 함께 가는 주변을 둘러보고 친구에게 손을 내밀고 잡으면서 더 풍성한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다.

재상봉행사는 끝났지만 이제 우리는 시작이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우리는 이제 새봄처럼, 처음처럼 친구들과 또 하나의 추억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진진해진다. To be continued.

2019년 후배사랑 장학금 수혜자

여러분을 마음껏 응원합니다

아동가족14 정오청

실내건축17 김채리

생활디자인15 정원식

의류환경17 김연준

식품영양17 이다연

* 후배사랑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후배들을 대상으로 학과장 추천을 받아 선정되며
한 학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김연준

의류 17



안녕하세요. 2019년도 2학기 생활과학대학 총동창회 장학금을 받게 된 의류환경학과 김연준입니다. 우선 이렇게 선배님들이 주시는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훌륭한 의류환경학과 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영광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지난 학기가 특히 저에게 힘든 학기였던 만큼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으니 너무 뿌듯합니다.

저는 주신 장학금을 의류인으로서 저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를 찾는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최근 저는 의류인으로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류 전공과 진로에 대한 경험을 쌓고 싶어 현재는 2020년도 1학기 생활과학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파견교 중 Reutlingen University, School of Textiles and Design에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해외에 교환학생을 가게 된다면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데에 이 장학금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쉽게도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공 관련 경험을 위한 전시회나 직업 탐방, 혹은 학업을 위한 계절학기 수강 등의 자기 개발을 위해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이 주신 장학금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자랑스러운 생활과학대학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생활과학대학 교수님들과 교직원 및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취감에 더하여 받은 선배님들의 선물

이다연

식영 17



생활과학대학 총동창회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영양학과 17학번 이다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9 학년도 2학기 생활과학대학 총동창회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한 번 입시에 실패를 경험하고 재수학원을 다니며 공부한 결과 정말 운이 좋게도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기대와 설렘을 가득 안고 입학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3학년이라는 것이 새삼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촌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전공 공부를 하며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라 그랬던 건지 생화학, 생리학 등 난생 처음 들어보는 갖가지 용어들이 저를 주눅들게 하였습니다. 또한 수능영어에는 자신 있었지만 처음 접하는 영어 강의에 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의 자신감은 점점 떨어져 갔고, 대학 공부와 대학생활 전반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참담했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열심히 공부할 때, 저는 못한다고, 부족하다고만 생각하고 두려움만 느낄 뿐 열심히 공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학점도 1학년 때보다 오히려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소 절망스러운 2학년을 보내고, 이대로 두려움에 떨기만 하면서 도태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보상심리에 취해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했던 것만 같아 다시 제 자신에게 엄격해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입학하고 싶었던 연세대학교에 들어온 만큼 이곳에서 제 한계에 도전하고 싶었고, 인생의 막대한 목표 중 하나였던 4.3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1학기에 힘들 때도 많았지만 다시는 과거의 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공부하고,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생활과학대학 총동창회 선배님들께서 직접 격려까지 해주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큰 성취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선배님들이 이런 큰 선물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 힘써 주시고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저도 꼭 본받겠습니다. 선배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선배님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향한 원동력을 얻다

김채리

실건 17



안녕하세요. 실내건축학과 17학번 김채리입니다.

생활과학대학 총동창회 장학금 수혜 학생으로 선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 다른 장학금이 아닌, 생활과학대학 선배님들로부터 장학금을 받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이번에 제가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의 관심사와 잘 맞는 과에 다니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 학과를 알아보던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저는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를 알게 되었고, 그 때 이후로 실내건축학과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7년도에 제 꿈의 학교인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학년 첫 전공필수 수업에서 정말 열심히 했지만 C+라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낮은 성적을 받아 낙심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열심히 전공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실기 과목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집중하며 즐겁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실기 과목 과제 제출을 위해 밤을 새는 것조차 행복했습니다. 밤을 새워 암기가 병행되는 공부를 하라고 하면 그저 고통스러웠을 것이지만 설계를 하며, 모형을 만들며 밤새는 것은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즐기며 실기 수업을 들어서인지 실기과목은 2년동안 모두 A를 받았습니다.

사실 요즘 많은 학우들이 그렇듯, 실내건축가가 정말 나의 길이 맞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휴학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했고, 그 고민이 끝이 나지는 않았지만, 이때까지 받은 설계 수업에서의 좋은 성적과 생활과학대학 선배님들께서 주신 장학금으로 어느 정도 실내건축가로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현재 저는 훌륭한 실내건축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컴퓨터 툴 공부를 하며 책을 읽고 영어공부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향해 나아가다 지쳐갈 때 선배님들께서 주신 장학금을 생각하며 다시 힘을 얻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꿈을 향해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생활과학대학 총동창회 장학금에 감사드리며 다음 학기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하여 한 발짝 더 발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솟게 하는 선배님들의 격려

정오청

아동 14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총동창회 선배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저는 이번 2019년도 2학기 생활과학대학 총동창회 장학금 수혜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아동가족학과 4학년 정오청입니다.

저는 현재 본 전공으로 교직 이수를 하면서 동시에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 하고 있고, 2015년 2학기부터 2018년 1학기까지 행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휴학도 몇 번 했기 때문에 지금 재학 중인 학우들과 비교했을 때 학번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사실 처음에 총동창회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었다고 통보받았을 때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재차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총동창회 장학금이라는 뜻깊은 선물을 받게 되어 벅차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쉽 없이 달려온 학부생 시절에 대해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주시는 것 같아 기쁘고 힘이 솟습니다. 생활과학대학 안에 뛰어난 학생 중에서 여러모로 한참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시고 장학금을 주시는 것은 아마 지금의 부족함을 더 채우고 메꾸어 앞으로 더 발전하길 원한다는 격려의 뜻이겠지요.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의 명성,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총동창회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하고 있다!” 는 선배님들의 응원

정원식

생디 15



2015년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에 합격했다고 통보를 받았을 때, 길고 긴 수험생활을 만족스러운 결과로 끝냈다는 기쁨을 크게 느꼈습니다. 마치 이제는 애써 공부하는 시간이 끝난 듯했습니다.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은 항상 “공부는 평생 동안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저 관념적인 표현 정도로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4년째인 지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에 비로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자신의 변화를 체감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추진 연료가 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 차이가 생겼을 때, 어제 보고 느끼던 세상이 오늘에는 다르게 보일 때, 내 미래에 더 큰 가능성을 부여했다는 느낌이 들 때, 저는 공부를 할 맛이 납니다.

반면 공부를 하면서 힘들 때는 위에서 느낀 것들이 별볼일 없는 착각으로 혹 다가오는 순간들입니다. 기껏 열심히 읽은 책의 내용을 소화하지 못하거나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다가도 나보다 한참을 앞서가고 있는 동료를 볼 때, 도서관에서 처음 보는 내용의 자료들이 나를 압도할 때, 내가 가꾸지 못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볼 때 나는 다시 한없이 작아지고 불안해집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공부를 하는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때로 현실감각의 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현실의 인재 시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방구석 학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다만, 열등감에 잠식당하지 않고 자존감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절묘하게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신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보다는 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찾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든, 공부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제게 “잘 하고 있다.”고 한 마디 건네듯 이번에 장학금을 주신 총동창회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금 중심을 잡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서 이번 받은 도움을 후배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 50주년 재상봉 행사를 마치고

곽순연

외생65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10

50년이란 세월을 돌아보니 순식간이다. 그래서일까, 그 긴 세월이 흐른 뒤에 만난 친구들도 “애!”, “OO야” 하고 망설임 없이 부를 수 있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간 듯, 늘 만나던 친구들과 다름없이 반갑고 친근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바로 동창생이기 때문일 것이다.

2박 3일의 남해 여행이 시작되던 날, 모두들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고, 버스 안에서는 이야기꽃이 피었다. 간간이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 친구들 덕분에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고, 지루할 새도 없이 목적지에 도착했다. 유람선을 타고 가며 심한 파도로 마음 줄이며, 멀미도 하면서 해금강을 둘러보고 아름다운 섬 외도를 산책했다. 남해의 진한 정취에 원 없이 취해보는 시간이



었다. 돌아가는 배에서 나이 지긋해 보이는 선장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어
무이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이소!” 하고 인사를 건네어, 노인들이 뒤에 계
시나 돌아보고 아무도 없으니 우리를 보고 말한 거라며 흥분하는 친구 때문
에 얼마나 웃었던지…. 여전히 백세시대의 중년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인
사가 고맙게 들릴리 만무했지만, 정말 우리 모두 건강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
보았다.

저녁 식사 후, 피곤도 잊은 채 흥겨운 한마당을 가졌는데, 이벤트에 남다른 재능
을 가진 친구 덕분에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다. 특히 미국에서 온 친구 세 명이,
제대로 갖춘 차림으로 박수를 받으며 등장하여 보여준 하와이언 춤은 정말이
지 매력적이고 인상 깊었다.

다음날은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에 올라 통영항과 한려수도의 비경을 감상
하고, 아기자기하게 예쁜 정원이 많은 해오름 예술촌과 남해 독일 마을을 산
책하였다. 케이블카에서 간식상자를 받은 일은 기내식을 받은 듯한 이색적인
경험이었고, 독일 마을의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시원한 생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 시간은 무척 달콤하게 느껴졌다.

마지막날, 창녕 성씨고택이 생가인, 친구 남편 성 회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우포늪과 제2의 경주라 할만큼 규모가 크고 많은 고군분을 둘러본 후, 우리나라 3대 명택 중의 하나인 창녕 성씨고택을 방문했다.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친절하게 설명해주신 성 회장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또 죄송했는지...

1929년에 지은, 너른 열두 대문 아흔아홉간 고택은, 창녕 지역의 가난한 농가들을 돕기 위해 처음으로 양과 보급에 힘쓴 성씨 문중의 주택으로, 전쟁에 소실된 부분을 재건하여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으니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보는 한지문과 문고리 장식들, 창틀, 기와지붕의 아름다운 모습들... 연못가의 운치있는 소나무는 고택의 기품을 더해주는 듯 했고, 뒤를 에워싼 대나무숲은 기와지붕과 어우러져 한 폭의 아름다운 동양화를 보는 듯했다.

성 회장님의 과분한 식사 대접과 선물까지 받고 서울행 버스에 오를 때, 하늘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쏟아진다는 소식이



들렸다. 끝까지 좋은 날씨와 함께 한 우리는 정말 행운이었고, 푸석푸석 먼지 일던 양파밭은 단비를 맞고 생기가 나겠다 싶어 마음이 훈훈해졌다. 물려오는 피곤함으로 줄기도 하고, 못다한 이야기로 아쉬움을 달래며 행복했던 2박 3일의 여행을 마쳤다.

좋은 날씨에 좋은 친구들과 좋은 곳으로 떠난 여행이었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뜻깊은 50주년 재상봉 행사와 여행을 잘 마치게 된 것에 감사하고,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따뜻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쓴 일과 더불어 후원금 기부와 여러 준비에 아낌없이 협조하고 수고한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지 못한 친구들을 생각하면 아쉽지만, 60주년 재상봉 행사 때는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다.



시월이 오면

박해경

주생69



시월이 오면 학창 시절이 생각난다. 한국의 70년대는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대학생들의 데모가 끊이지 않았다. 교내에서 행하는 평화적 시위에도 경찰은 최루탄으로 강제봉쇄하고 이에 학생들은 투석으로 맞섰다. 이때 몇몇 여학생들은 돌을 날라다 주었고 나도 그중에 있었다. 한번은 학장님께 불려가 꾸중을 들었는데도 잘못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당시 캠퍼스 내에는 정보원이 있어 늘 조심해야 하는 불안한 분위기였다. 사회에 대하여 잘 모르던 나에게 대학 생활은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직·간접적으로 보게 해 주었다. 그리고 사회정의에 대한 막연했던 개념이 구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나는 정의과의 과목을 듣기도 하면서 식견을 넓히고자 노력해 보았다.

어느 날 친구가 식당 종업원 대상의 교육을 하는데 그중에 손뜨개 강사가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나는 이것이 의식화 교육의 일환이라 생각하면서도 허락했다.

그 일을 주관하는 남학생은 군복무를 마친 복학생이었다. 그는 학교 안의 식당 종업원들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더니 손뜨개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그는 손뜨개 강습을 하는 틈틈이 노동자의 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그 학생은 의식화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이론이 분명했다. 그리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굳었으며, 무엇보다 열정이 넘쳐 보였다.

이런 일에 동참하면 나는 어찌 되는 것일까? 지금이라도 그만두겠다고 말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며 나의 가슴은 쿵쿵 뛰었다. 두려웠다. 고민을 거듭하다가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아주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였다. 두려웠지만 '사회정의'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져보았다. 그리고 교육내용을 정리했다.

다음날 수업을 끝내고 학생회관에 갔는데 어디선가 “무장군인이다!”라고 외치는 소리에 학생들은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것을 거듭하며 갑작스런

일에 우왕좌왕하였다. 그때, 총학생회장과 임원들이 잡혀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이 왜 죄인처럼 잡혀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캠퍼스 안으로 군인들이 탄 트럭이 물밀 듯이 들어왔고 학생들은 빨리 귀가하라는 방송이 나왔다.

우리는 총을 든 군인들이 서 있는 사이로 쫓겨나듯 학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분노가 치솟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저 울음이 터져 나올 뿐이었다. 이것이 내가 대학 3학년 때 겪은 1971년 10월에 일어난 위수령 사태였다.

얼마 후 잡혀갔던 학생회 임원들이 군대로 강제 입영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입영 열차가 떠나는 용산역에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우리는 눈물콧물을 흘리면서 “We shall overcome! (우리 승리하리라!)”을 목이 터져라 불렀다. 주머니 용돈을 털어 빵을 사서 입영되는 학생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이 사회는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과 사회가 변화되려면 젊은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마치 세상 걱정을 내가 다 짊어지는 듯하였다.

위수령으로 인하여 노동자 의식화 교육은 무산되었다. 학교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고 학교 안의 식당도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나는 노동자들을 도울 좋은 기회가 사라진 데 대해 아쉬운 생각도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다.

졸업 후 우연히 노동자 의식화 교육을 하려던 그 남학생을 만났다. 그는 여전히 열정적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연은 필연이 되어 그와 함께 40여 년을 부부의 연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때 함께 했던 학우들의 소식을 간간이 전해 듣는다. 올 시월에는 <We shall overcome!>을 목이 터져라 불렀던 그때가 유난히 그립다.



rozanni jewelry

강남구 압구정로 224 우미빌딩 116호

02-546-2827

간호72 한미란



bling
bong
JEWELRY

SEOUL | TOKYO | BANGKOK

585-5 Shinsa-dong, Gangnam-gu, Seoul, Korea 02 547 5855 www.blingbong.co.kr

www.jvrstyle.com

<https://smartstore.naver.com/jvr>

4F woojeonga Bldg., Yeoksam-ro 414-gil,
Gangnam-gu, Seoul, Korea

+82 - 2 - 3453 - 8971 / 8921

onlinesales@jvrstyle.com



DETAIL IN CULTURE



주생89 문소라





연세대학교 연세우유는 가족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연세우유의 다양한 제품으로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연세대학교 연세우유의 수익금 전액은 교육재원으로 환원됩니다.

주문전화 신청

제품 및 주문문의
080-361-2000



모바일 가정배달 신청

회원가입 없이 모바일로 바로 신청하세요!
http://m.yonseidairy.com/promo_fr.jsp



인터넷 검색 신청

연세우유 가정배달 ▼ 검색

검색 후 홈딜리버리 클릭!



2019 브랜드 고객충성도
우유, 두유부문 1위
한국 소비자포럼 주관



2018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우유 가정배달 부문 1위
디지털 조선일보 주관



2018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두유 부문 1위
브랜드스타 주관

아동74 우연숙 / 식생77 우인숙



우태하 · 한승경 피부과 의원

진료과목

- 점, 잡티, 기미, 주근깨 레이저 클리닉
- 볼륨업 보톡스 필러 클리닉
- 노화방지 클리닉
- 여드름 클리닉
- 여드름 흉터 클리닉
- 메디컬 스킨케어(에스테틱)



www.wooskin.co.kr

전화번호 02-756-2590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1번출구

식영89 조은영

LG Household & Healthcare Affiliated Company

美젬스토리
나를 찾아가는 아름다움

조 은 영

기술총괄, Ph.D. / 부문장

07528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 B동 1305호

T. 02-6958-9338

F. 02-6958-9334

M. 010-3649-0202

E. eunicecho@lgcarepartner.com

아동79 김은숙

주생89 최성희



경희바른정한의원

KYUNGHEE BAREUN JEONG KOREAN MEDICINE CLINIC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353
고덕그라시움 상가 305호
(상일동역 1번 출구)

전화 | 010-6420-9042



최-페레이라 건축
건축설계.실내설계
www.chaeperiera.com
chaepereira@gmail.com
02 3672 3005

연세 김치과

원장 김용주
(아동82 박신진)

서울 종로구 숭인동 1050
02-928-6764

생활과학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문의 날 시리얼 협찬
식영89 이주원

생활과학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문의 날 그래놀라 초코바 및 웨하스 협찬
주생77 김민정



WINNERS



WINNERS

Studios [홍대본점]

- 전화 : 02-324-5532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25, 상록빌딩 5,6층
- 규모 : 댄스홀 5, 데스크 1, 상담실 1, 휴게실 2, 화장실 2



7일마다 알프스의 상쾌함을 신발속으로



Imm초슬림

스위스깔창

검색

한국총판 J PARK International

경기도 하남시 조영대로45

(동선동 피사면역제스) F91호

02-2514

T. 031-607-8807

M. 010-5497-8807

용도

**자전거 라이딩
모터 사이클
겨울철 산행
아웃도어 활동
야외직무 수행
스키·스노우보드
등 다양한 활동**

한겨울도 **손끝까지** 따뜻하게!

배터리로 발열하는 플렉스 에보 발열 장갑

· 최장 8시간 20분 발열!

케이블 충전식 발열 배터리

· 편안한 착용감! 가벼운 움직임!

스트레치 패딩, 방풍 원단 사용

· 뛰어난 보온성!

손바닥, 손끝, 엄지 그립 천연가죽 사용



성능 · 단계별 온도 & 발열 유지 시간

1단계 38-42℃ 8시간 20분 2단계 48-52℃ 4시간 45분

3단계 58-62℃ 3시간 15분 4단계 68-72℃ 2시간 30분

문의 · 제품 문의: 070-4006-3359 · 온라인 구매 문의: www.nsrriding.co.kr

COFFEE EXCHANGE

COFFEE REVOLUTION: THE 4th WAVE

(주)커피익스체인지는 10년동안 최고급 스페셜티 커피만을 제조하여,
국내 뿐 아니라 미국, 홍콩등지에서 최고의 맛으로 인정 받아온
커피 전문 회사입니다.

아울러 국내 유명 브랜드 및 외국계 기업등의 사내 카페 및
커피머신 렌탈 사업으로 산업계 전반에 걸쳐 커피 문화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커피익스체인지의 사업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페셜티 커피 원두 제조, 납품
2. B2B 커피 개발 / 카페 창업 컨설팅
3. 기업 전용 원두커피머신 렌탈
4. 자사 카페 브랜드 ‘칸틴’ 운영

커피에 관한 모든 것. 커피익스체인지

www.coffeeexchange.co.kr

junyong@coffeeexchange.co.kr

1600-2208





식생79 박태선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79학번 박태선 동문의
(現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연구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한 더마 화장품 브랜드
더마센트

DERMASCENT
Resilience

내 안팎의 회복탄력성을
추구하는 피부과학 더마센트

연세대 동문을 위한 30% 상시 할인

문의: 02-362-8733 / 010-8316-3479

웹사이트: www.derma-scent.com

인스타그램: [dermascent_official](https://www.instagram.com/dermascent_official)

제품라인업:

Ph.D. Ato Formula™

Ph.D. Regen Formula™

Ph.D. Hydrating Formula™